

출판유통통합전산망

판매 데이터 리포트

2025년 10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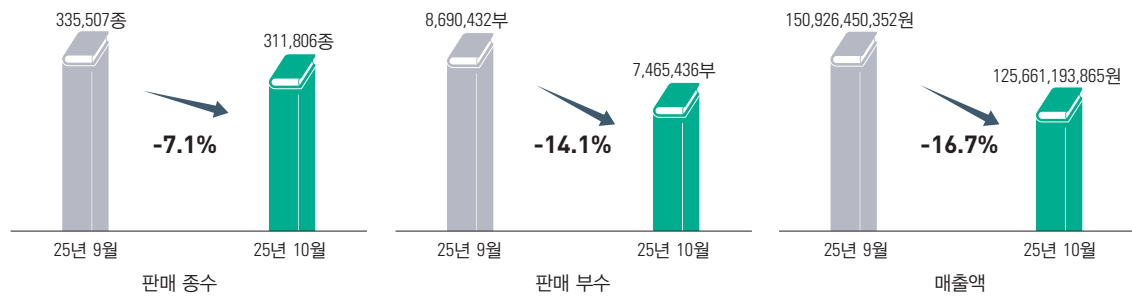


출판유통통합전산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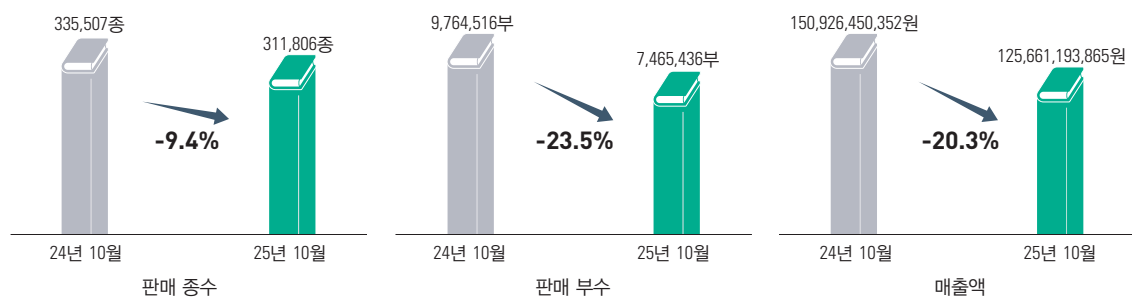
2025년 10월 판매 리포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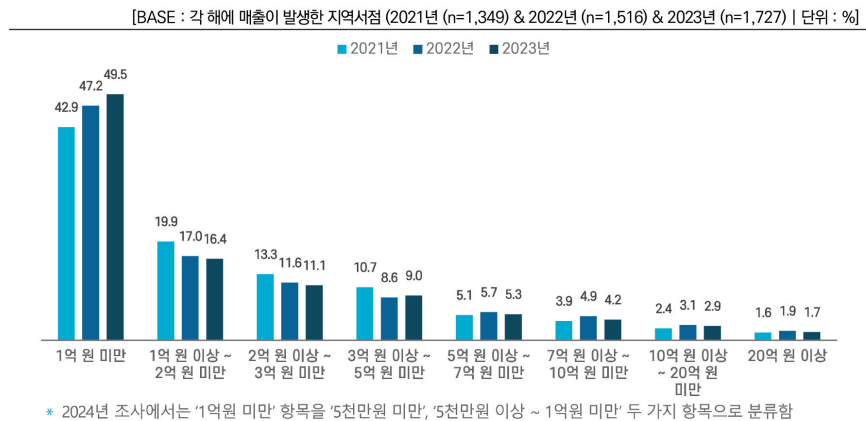
■ 2025년 10월 기준, 전월 대비 판매 종수, 판매 부수, 매출액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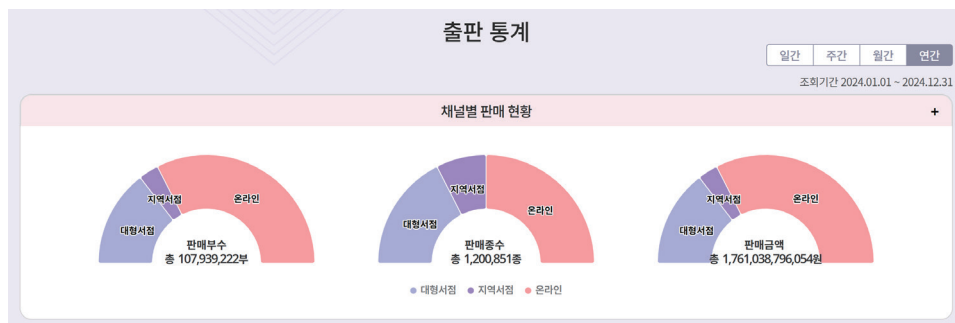
■ 2025년 10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판매 종수, 판매 부수, 매출액 증감률



■ 지역서점의 연 매출액 3개년 구간 분포 비교



■ 출판전산망 2024년 채널별(온라인, 대형서점, 지역서점) 판매 현황(판매 부수, 종수, 금액)



일러두기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은 국내 출판 유통 구조의 투명화와 선진화를 위해 구축된
출판 유통 정보 통합관리시스템입니다.

- 출판사는 도서의 메타데이터(도서 정보)를 온라인 서점 등 유통사에 공유하고 홍보·관리할 수 있으며,
전산망과 연계된 대형서점 및 지역서점의 판매 데이터 및 독자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산망에 등록된 메타데이터(도서 정보)는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등으로 바로 전송할 수 있으며,
OPEN API로 연계된 도서관, 지역서점, 유통단체 등에도 전송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출판유통통합전산망에 전송된 판매데이터를 분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현재 전산망은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영풍문고 및 일부 지역서점으로부터 판매 데이터를 제공 받고 있습니다.
- 이 보고서의 도서 주제분류는 국제표준 테마(Thema)를 따르고 있습니다.
- 이 보고서에는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분석 대상)

- 출판유통통합전산망에 전송된 온·오프라인 서점 판매 데이터

(분석 대상 기간)

- 2025년 10월

(기타 안내)

-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반품/취소 건이 발생하거나 추가 판매 데이터가 전송된 경우, 데이터 추출 시점과 현재 데이터 사이에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발행인 이구용

편집인 김일희

대표 편집위원 김동혁

편집위원 김정명, 오민재

발행월 2025년 11월

발행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주소 (54866)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중동로63

홈페이지 bnk.kpipa.or.kr

E-mail kbookdata@kpipa.or.kr

기획/편집 출판전산망운영실

디자인/제작 (주)도픽스

* 본지에 실린 글의 내용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본지에 실린 글과 이미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필자의 동의 없이는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Contents



2025년 10월

출판유통통합전산망 판매 데이터 리포트

5

2025년 10월 판매 동향

데이터로 보는 지역서점의 실태

10

I. 몇 가지 지역서점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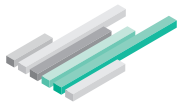
II. 지역서점 POS 사용 현황

III. 출판전산망과 지역서점 POS 연계 현황

IV. 출판전산망과 지역서점 POS 연계 확대 필요성

판매 데이터 리포트

2025년 10월



2025년 10월 판매 동향

2025년 10월 출판시장, 9월 대비 전반적 하락... 소비심리 위축 영향
판매 종수 -7.1%, 판매 부수 -14.1%, 매출 -16.7%

2025년 10월 출판시장은 전월인 9월에 비해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이며 시장의 위축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출판유통통합전산망¹⁾의 판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10월 한 달간 판매된 도서는 총 311,806종, 판매부수는 7,465,436부, 매출액은 약 1,256억 6,119만 원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9월 대비 각각 7.1%, 14.1%, 16.7% 감소한 수치로, 판매 종수·판매 부수·매출 모두 하락한 전형적인 비성수기 패턴을 보였다.

10월 '화제의 책 200선'을 살펴보면 《트렌드 코리아 2026》이 가장 많이 판매된 도서로 집계되었으며, 이어 구병모 작가의 신간 《절창》과 인기 아동서 《흔한남매 20》, 2025년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크리스너호르케이 라슬로의 《사탄 탕고》가 그 뒤를 이었다. 작가의 또 다른 대표작 《저항의 멜랑콜리》도 59위에 올라 수상 효과에 따른 수요 증가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판매 종수는 9월 대비 7.1% 감소한 311,806종으로, 독자의 구매 선택 폭이 줄어든 것으로 해석된다. 신간 출간 증가세 둔화, 혹은 독자층이 특정 장르 및 인기작을 중심으로 소비를 집중하는 현상이 강화되면서 다양한 분야가 고르게 판매되는 구조가 약해진 영향으로 보인다.

10월 판매 부수는 전월보다 14.1% 감소했으며 이 감소폭은 매출 하락(-16.7%)으로 직결됐다. 특히 매출 감소폭이 판매량 감소보다 더 컸다는 점은 평균 판매 단가가 내려갔다는 의미로 저가 도서 판매 비중 확대, 고가 도서 판

¹⁾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은 국내 출판유통구조의 투명화와 선진화를 위해 구축된 출판유통정보 통합관리시스템(서비스 플랫폼)이며, 출판사 및 유통사(온·오프라인 서점 등)의 참여·협력으로 운영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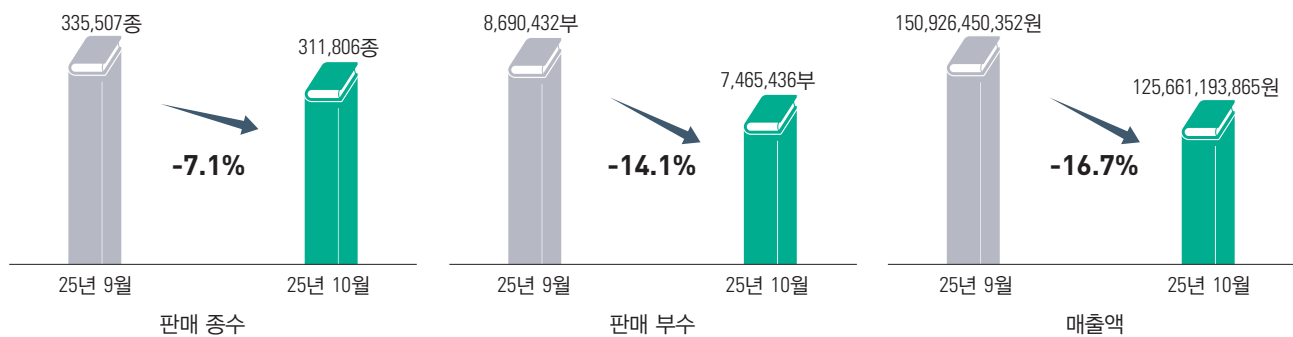
매 감소, 소비 심리 위축으로 가성비 중심 구매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로 인해 독자들은 전체 구매량뿐 아니라 한 권당 지출하는 금액까지 줄이는 '이중 축소 소비 패턴'을 보인 것으로 볼 수 있다.

■ 2025년 10월 판매 동향

구분	9월	10월	2024년 10월	비고*
월 판매 총 종수(종)	335,507	311,806	344,217	-7.1% ↓
월 판매 총 부수(부)	8,690,432	7,465,436	9,764,516	-14.1% ↓
월 판매 총액(원)	150,926,450,352	125,661,193,865	157,697,486,119	-16.7% ↓

*비고 = 전월 대비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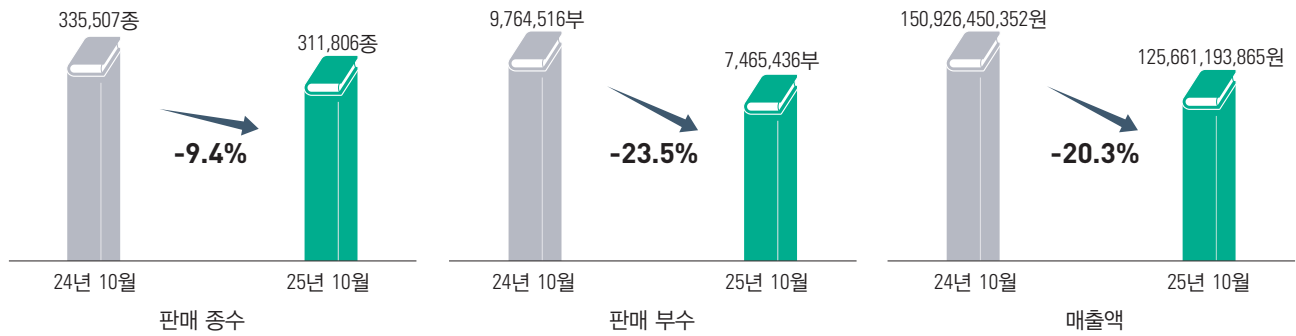
■ 2025년 10월 기준, 전월 대비 판매 종수, 판매 부수, 매출액 증감률



2025년 10월 출판시장은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판매 종수, 판매 부수, 매출액 모두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했다. 판매 종수는 9.4%, 판매 부수는 23.5%, 매출액은 20.3% 감소하며 전반적인 시장 침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는 단순한 판매량 축소를 넘어 독자들의 도서 구매 의향 자체가 약해진 상황으로 해석된다.

여기에 긴 명절 연휴로 인한 전월 대비 매출 하락이 더해지며 시장 위축이 더욱 두드러졌다. 특히 경기 둔화와 물가 상승이 소비심리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가운데, 해당 시기에 시장을 견인할 만한 대형 신간이 부재했던 점도 수요 감소에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월과 마찬가지로 판매 부수 감소폭이 매우 컸음에도 매출액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는 점은, 실제 구매된 도서의 평균 가격이 낮아졌음을 시사한다. 저가 도서 소비 확대, 고가 도서 구매 감소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독자들이 지출을 줄이면서도 가성비를 우선하는 소비 경향이 강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 2025년 10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판매 종수, 판매 부수, 매출액 증감률



2025년 10월 출판시장은 [그래픽노블, 만화] 분야를 제외한 대부분의 분야에서 전월 대비와 전년 동월 대비 모두 매출 하락을 기록하며 전반적인 약세가 확연히 나타났다. 이는 사회 전반의 소비 심리 둔화와 문화·콘텐츠 소비 여력 감소가 광범위한 장르로 확산된 결과로 풀이된다. 다만 일부 분야는 오히려 역성장을 기록하며, 독자 수요가 기존 주류 분야에서 새로운 카테고리로 이동하고 있는 조짐도 관찰되었다.

가장 두드러진 성장세는 [그래픽노블, 만화] 분야로 나타났다. 이 분야는 전월 대비 13.9%, 전년 동월 대비 39.4% 증가하며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다. 이는 웹툰 기반 단행본 시리즈의 꾸준한 인기, 시리즈 완간 효과, 유명 작가의 신작 출간, 극장 개봉작 영향 등이 복합적으로 독자 수요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10월 개봉한 일본 애니메이션 <극장판 체인소 맨: 레제편>의 흥행이 직접적 동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월간 판매 Top 50에 《체인소 맨》 1~20권 전권이 진입한 것은 영화와 원작 간 강한 시너지 효과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이다.

또한 8월 개봉한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의 지속 상영은 《귀멸의 칼날》 관련 도서 매출을 견인했다. 실제로 해당 타이틀은 전체 출판시장 판매의 약 14% 비중을 차지하며, 영상 콘텐츠의 흥행이 출판시장 매출로 직결되는 크로스미디어 효과가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경제, 재무, 비즈니스, 경영] 분야는 전월 대비 1.2% 소폭 감소했음에도 전년 동월 대비 14.0% 증가하며 뚜렷한 성장세를 유지했다. 이는 경기 불확실성의 장기화 속에서 독자들이 경제 전망·미래 트렌드 분석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소비하고 있다는 흐름을 보여준다.

특히 《트렌드 코리아 2026》이 월간 전체 판매량 1위를 차지하며 해당 분야의 성장을 주도했다. 매년 정기적으로 출간되는 베스트셀러 시리즈의 영향력과 더불어, 2026년 경제·사회 전망에 대한 독자의 관심이 높아진 결과로 보인다. 또한 《머니 트렌드 2026》, 《시대에보: 경량문명의 탄생》 등 기술·경제·사회 구조 분석 콘텐츠가 판매를 뒷받침하면서, '불확실성 시대의 생존 전략'을 요구하는 독자 니즈가 이 분야의 핵심 성장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 [기술·공학·농축산업·산업공정] 분야는 전월 대비 50.8% 감소하며 가장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다. 이는 전월에 존재했던 일시적 수요 요인이 사라진 데다, 전문서적 특성상 고가 도서 구매가 경기 둔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 결과로 보인다. [법] 분야 역시 전월 대비 45.8% 감소했는데, 최근까지 상승세를 이끌었던 주요 신간 출간이 마무리되면서 수요가 자연스럽게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법·제도 이슈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점차 약해지면서 매출 하락 폭이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의학·간호학] 분야는 전월 대비 43.5% 떨어지며 하락세를 보였다. 이 분야는 학기 초·시험 시기 등 특정 기간에 수요가 집중되는 계절성이 강한데, 10월은 신학기 이후 전문서 구매가 급격히 줄어드는 시기여서 수요가 빠르게 감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수험생, 학생들의 소비 여력 저하도 전문 학습서 구매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언어·언어학] 분야도 전월 대비 33.4% 감소했으며, 이는 교육 일정에 따른 자연 감소와 함께 자격시험 수요 둔화가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소설 및 연관 상품] 분야는 전년 동월 대비 63.2% 감소하며 전체 분야 중 가장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가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관련 도서 판매가 크게 증가했지만, 올해는 이러한 특수 효과가 사라지면서 뚜렷한 대비를 보였다. 실제로 해당 분야의 매출은 2024년 9월 96억 1,196만 원에서 10월 301억 7,891만 원으로 214% 급증했으나, 2025년에는 전월 대비 오히려 6.7%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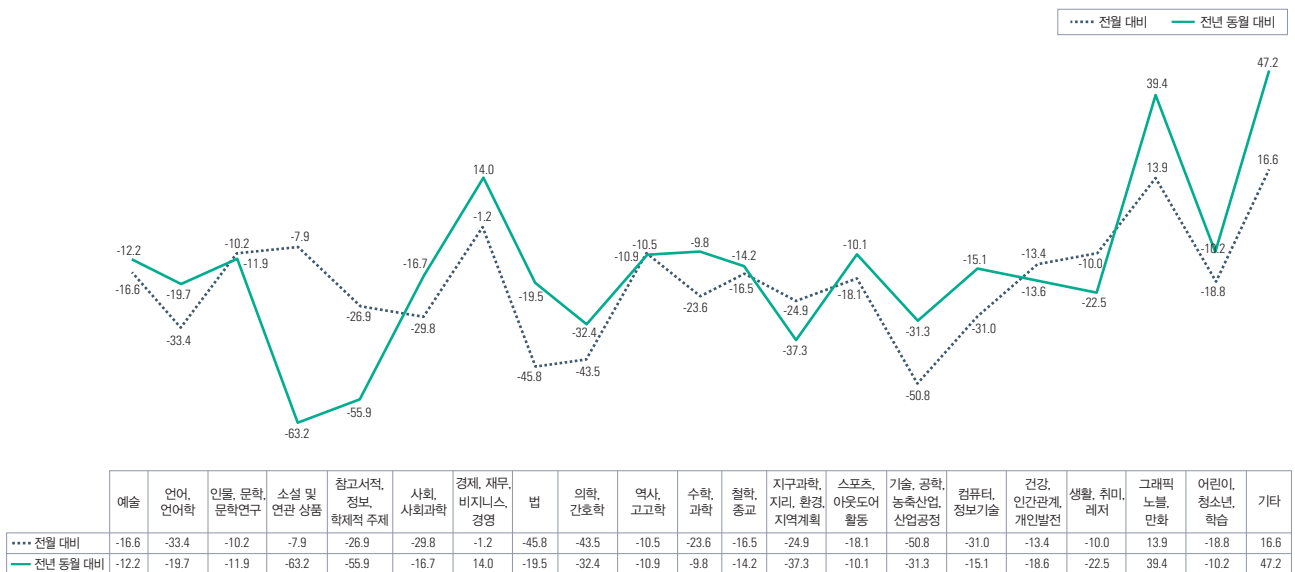
다만 2025년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인 크리스너호르커이 라슬로의 《사탄탱고》가 전체 판매 순위 4위, [소설 및 연관 상품] 분야에서는 2위를 기록하며 일정 부분 수요를 견인했지만, 지난해와 같은 문화적 파급력을 만들어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실제 30위권 내 해당 분야의 비중을 살펴보면, 2024년 43.3%에서 2025년 30%로 축소된 것이 확인된다. 이는 단순히 노벨문학상 효과가 사라진 데 그치지 않고, 올해는 독자들의 관심이 특정 문학 작품에 집중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보인다.

문학 분야의 하락은 노벨문학상 수상 여부에 따른 특수뿐만 아니라, 국내 문학 분야 전반에서 독자 구매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웹소설·웹툰 등 디지털 콘텐츠로 독자층이 이동하는 구조적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 2025년 10월 주제 분류별 매출액 증감률

구분	판매 총액(원)			증감률(%)	
	2025년 9월	2025년 10월	2024년 9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예술	5,084,099,045	4,239,395,461	4,829,030,535	-16.6 ↓	-12.2 ↓
언어, 언어학	8,947,353,095	5,962,861,127	7,426,194,892	-33.4 ↓	-19.7 ↓
인물, 문학, 문학연구	11,745,797,465	10,545,693,372	11,966,674,022	-10.2 ↓	-11.9 ↓
소설 및 연관 상품	12,052,742,015	11,094,910,833	30,178,915,845	-7.9 ↓	-63.2 ↓
참고서적, 정보, 학제적 주제	1,815,477,672	1,326,423,521	3,009,672,766	-26.9 ↓	-55.9 ↓
사회, 사회과학	18,427,771,645	12,929,634,046	15,527,901,016	-29.8 ↓	-16.7 ↓
경제, 재무, 비즈니스, 경영	11,191,653,862	11,058,585,905	9,702,360,471	-1.2 ↓	14.0 ↑
법	720,667,443	390,903,533	485,815,760	-45.8 ↓	-19.5 ↓
의학, 간호학	1,633,634,570	922,997,213	1,366,196,092	-43.5 ↓	-32.4 ↓
역사, 고고학	2,487,398,708	2,227,173,023	2,498,692,730	-10.5 ↓	-10.9 ↓
수학, 과학	3,090,939,443	2,361,946,489	2,617,550,420	-23.6 ↓	-9.8 ↓
철학, 종교	6,638,013,623	5,542,889,838	6,459,690,998	-16.5 ↓	-14.2 ↓
지구과학, 지리, 환경, 지역계획	203,008,199	152,408,108	242,903,549	-24.9 ↓	-37.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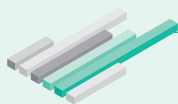
스포츠, 아웃도어 활동	453,536,769	371,564,696	413,212,937	-18.1 ↓	-10.1 ↓
기술, 공학, 농축산업, 산업공정	2,067,855,323	1,017,434,916	1,481,948,411	-50.8 ↓	-31.3 ↓
컴퓨터, 정보기술	4,510,176,729	3,113,892,147	3,666,897,392	-31.0 ↓	-15.1 ↓
건강, 인간관계, 개인발전	7,856,680,456	6,803,067,471	8,352,918,706	-13.4 ↓	-18.6 ↓
생활, 취미, 레저	3,374,297,213	3,037,992,834	3,921,106,297	-10.0 ↓	-22.5 ↓
그래픽노블, 만화	5,051,528,615	5,754,175,226	4,128,263,167	13.9 ↑	39.4 ↑
어린이, 청소년, 학습	43,412,517,912	35,243,933,380	39,232,745,198	-18.8 ↓	-10.2 ↓
기타	161,300,550	188,013,906	127,762,750	16.6 ↑	47.2 ↑



김동혁 _ 서일대학교 미디어출판학과 조교수

데이터 기반의 정량적 분석을 바탕으로, 출판 생태계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 및 프로젝트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다. 주요 연구로는 『전자출판시장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2024), 『디지털 환경에서 도서관 서비스 품질 분석에 관한 연구』(2024), 『적소이론을 통해 본 도서 발견에 관한 연구』(2018) 등이 있으며, 변화하는 출판 환경에 대응한 대안 제시와 정책 제언에 힘쓰고 있다.

데이터로 보는 지역서점의 실태



지역서점은 우리 지역의 문화적 거점이자 독서 생태계의 핵심 구성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하지만 출판물 판매 채널에서 지역서점의 자리는 온라인서점과 대형서점에 점점 더 밀려나고 있다. 이러한 지역서점의 현황은 지역서점 실태조사 같은 정기적인 조사 보고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출판전산망에 POS 시스템을 연계한 지역서점의 판매 데이터로도 유추할 수 있다. 이번 분석 리포트에서는 지역서점의 운영 현황을 데이터로 살펴보고, 출판전산망과 지역서점 POS 연계 현황에서 시사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I. 몇 가지 지역서점 실태

〈2024 지역서점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서점 3,295곳 중 지역서점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964곳을 제외한 총 2,331곳이 지역서점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413곳, 경기 430곳, 부산 173곳 등 수도권과 주요 광역시에 상대적으로 많은 서점이 분포하고 있다. 인구 10만 명당 지역서점 수는 전국 평균 4.55개로 평균 보다 낮은 지역서점 수를 보인 곳은 인천 2.65개, 경기 3.14, 세종 3.33개, 충북 3.96개, 서울 4.42개이며, 평균 보다 높은 지역은 제주 12.38개, 전북 7.82개, 대전 7.02개 순으로 나타났다.

■ 전국 지역서점 수 (단위: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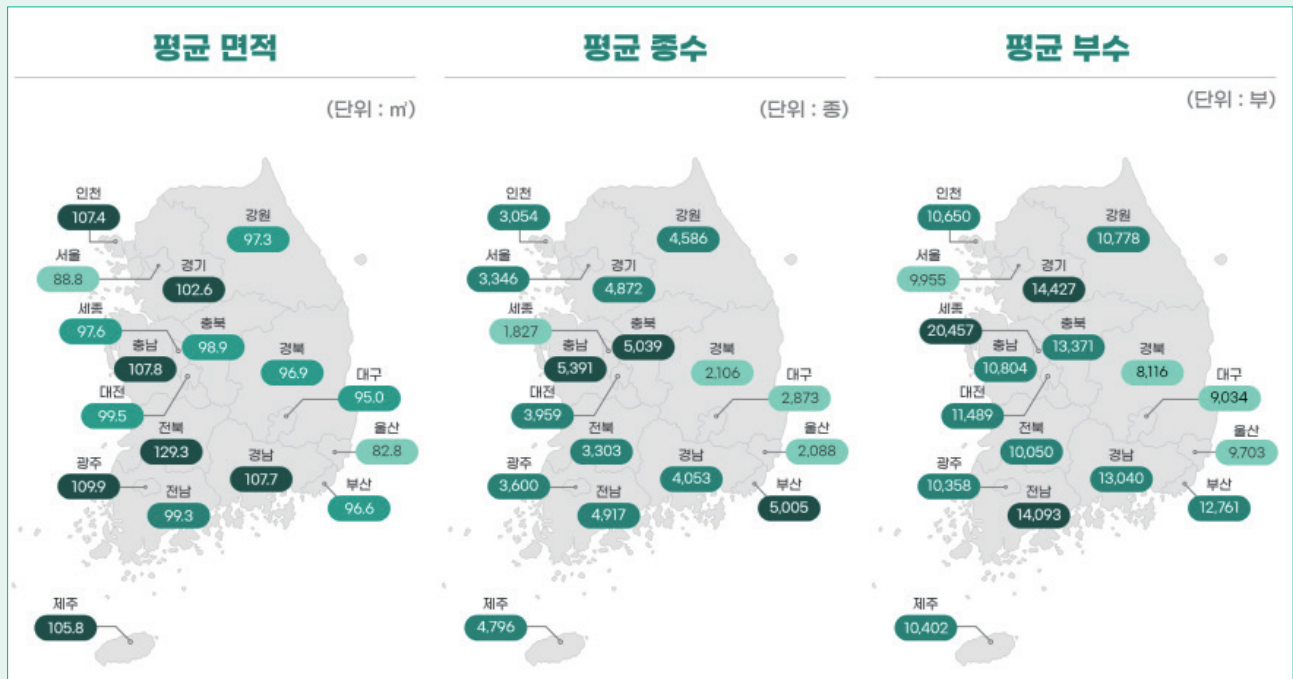
지역서점의 소멸 지역과 소멸 위험 지역도 함께 확인되었다. 서점이 단 한 곳도 없는 지역은 총 6곳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과 순창군, 경상북도 청송군·봉화군·울릉군, 경상남도 의령군이 해당한다. 또한 서점이 1개만 남아 있는 지역은 21곳으로 조사되었으며 강원특별자치도 5곳(평창군, 정선군, 양구군, 인제군, 양양군), 충청북도 2곳(영동군, 증평군), 충청남도 1곳(청양군), 전북특별자치도 2곳(무주군, 장수군), 전라남도 7곳(곡성군, 고흥군, 보성군, 함평군, 영광군, 진도군, 신안군), 경상북도 3곳(영양군, 고령군, 성주군), 경상남도 1곳(합천군)으로 분포해 있다. 이는 곧 문화접근성의 심각한 불균형과 동시에 지역서점 소멸 위기를 의미한다.

매장 비치 도서 종수는 평균 3,958종으로 집계되었다. 매장 비치 도서 종수는 '1,000~2,000종 미만'의 응답 비율이 16.6%로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100종 미만'(15.1%), '500~1,000종 미만'(14.4%), '100~300종 미만'(13.1%) 등의 순이었다. 서점 형태별로 보면, '종합서점'이 평균 5,039종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독립출판물 서점'은 평균 995종에 불과해 서점 형태별로 매장 비치 도서 종수의 편차가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매장 비치 도서 부수를 살펴보면 평균 11,518부이며, '2,000~5,000부 미만'의 응답 비율이 20.4%로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1,000부 미만'(20.2%), '1,000~2,000부 미만'(15.4%), '5,000~10,000부 미만'(12.5%) 등의 순이었다.

서점 형태별로 보면, '종합서점'은 평균 13,931부, '학습참고서/수험서 서점'은 7,378부, '단행본 서점'은 4,816부, '독립출판물 서점'은 3,285부로 나타나 서점 형태에 따른 매장 비치 도서 부수의 편차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매장 비치 도서 분야별 부수 비율을 보면, '일반 단행본'이 36.4%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학습참고서'(32.9%), '유아동 도서'(12.9%), '독립출판물'(8.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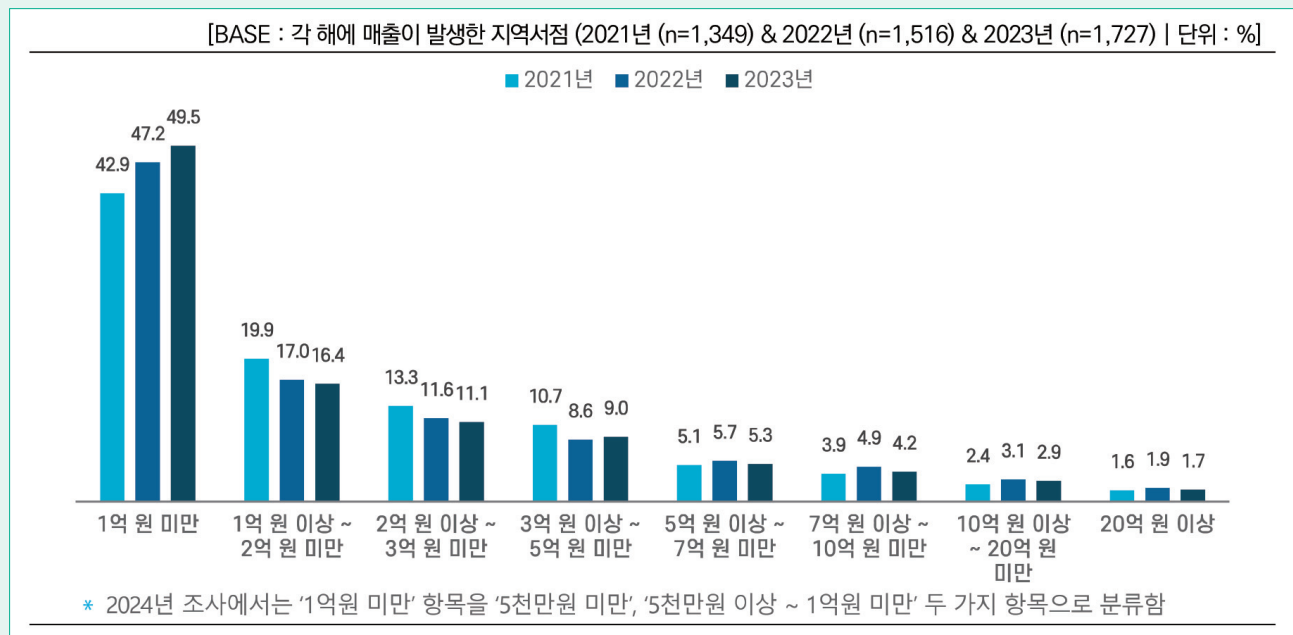
■ 지역별 평균 면적/종수/부수 현황



* 출처: <2024 지역서점 실태조사>

지역서점 운영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매출, 공간, 인력, 재고 모두에서 제약을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부분의 지역서점은 인력 1~2명이 평균 30평 규모의 매장을 운영한다. 종합서점이 70.3%, 특정 분야 서점이 29.7%를 차지한다. 매장 소유 형태는 임차(월세)가 50.9%로 가장 높으며, 자가 소유 24.4%, 임차(전세+월세) 14.5%, 임차(전세) 7.4%, 임차(판매수수료) 1.3%, 기타 1.6%로 조사되었다. 하루 평균 방문자 수 역시 평일 35.6명, 주말 38.3명으로 매우 적은 수준이며, 특히 '10~20명 미만' 또는 '5명 미만' 방문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해 지역서점의 낮은 유입률이 확인된다. 무엇보다 지역서점의 연 매출을 살펴보면, 연 매출 1억 원 미만 서점의 비중은 매년 증가하여 2023년에는 전체의 49.5%로, 절반에 가까운 수준에 이르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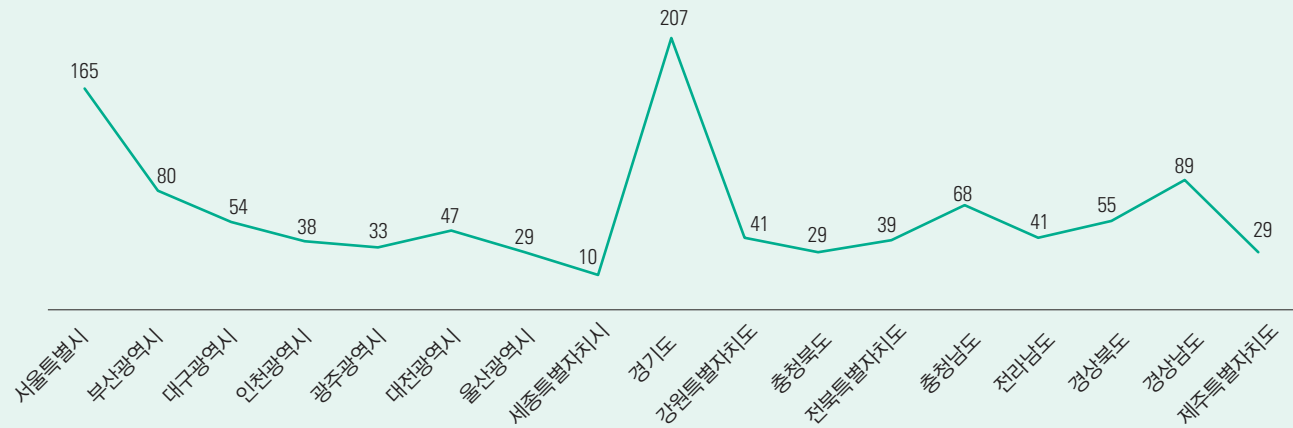
■ 지역서점의 연 매출액 3개년 구간 분포 비교



II. 지역서점 POS 사용 현황

〈2024년 지역서점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역서점 POS 사용률은 58.3%로 1,054개의 서점이 POS를 사용 중이다. 지역별 POS 사용률은 경상남도(71.8%), 충청북도(70.7%)가 70%를 넘으며 가장 높았고, 제주특별자치도(39.7%), 경상북도(47%)는 50%를 밑돌아 지역 간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별 POS 사용 지역서점 수 (단위: 곳)



POS 사용률은 매출 규모 및 매장 규모와 연관성을 보여, 이 두 가지가 클수록 POS 사용률이 높아지는 경향도 확인되었다. 연 매출 5천만 원 미만 서점의 POS 사용률은 39.9%에 그친 반면, 연 매출 20억 원 이상 서점은 72.4%, 7억~10억 원 구간은 94.4%로 POS 도입이 일반화되어 있다.

매장 규모에서도 유사한 경향을 관찰되는데, 330㎡ 초과 대형 매장의 POS 사용률은 98.5%에 달해 사실상 거의 모든 매장이 POS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출 규모와 매장 규모가 클수록 재고 및 판매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POS 도입 필요성이 커지기 때문으로 보인다.

■ 서점 매장 규모 및 매출 규모별 POS 사용현황 (단위: 곳,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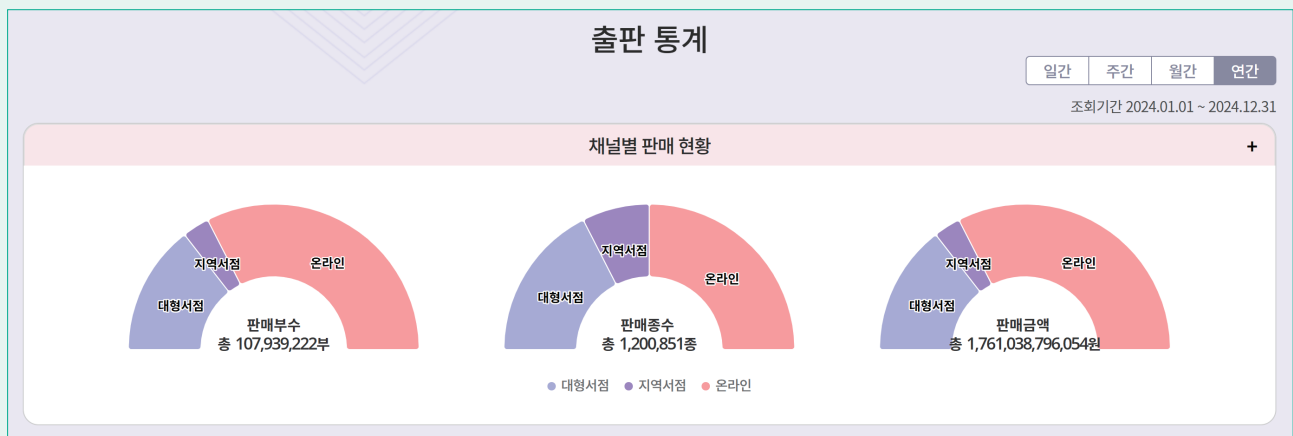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사용한다	사용하지 않는다
매장 규모	33㎡ 이하	237	42.6	57.4
	33㎡ 초과 ~ 66㎡ 이하	654	52.3	47.7
	66㎡ 초과 ~ 165㎡ 이하	628	61.0	39.0
	165㎡ 초과 ~ 330㎡ 이하	222	72.5	27.5
	330㎡ 초과	68	98.5	1.5
매출 규모	5천만 원 미만	546	39.9	60.1
	5천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309	46.9	53.1
	1억 원 이상 ~ 2억 원 미만	283	64.7	35.3
	2억 원 이상 ~ 3억 원 미만	191	68.1	31.9
	3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156	79.5	20.5
	5억 원 이상 ~ 7억 원 미만	91	86.8	13.2
	7억 원 이상 ~ 10억 원 미만	72	94.4	5.6
	10억 원 이상 ~ 20억 원 미만	50	92.0	8.0
	20억 원 이상	29	72.4	27.6
	24년 신규 서점/비해당	82	48.8	51.2

Ⅲ. 출판전산망과 지역서점 POS 연계 현황

출판전산망은 도서 판매 통계 집계를 위해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영풍문고로부터 판매 데이터를 매일 취합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일부 지역서점의 POS를 연계하여 판매 데이터를 취합하고 있다. 출판전산망 채널별(온라인서점, 대형서점, 지역서점) 판매 현황에서 지역서점의 비중을 확인하기 위해 2024년 1월 ~12월까지 연간 판매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역서점의 비율은 판매 부수 6%, 판매 종수 15%, 판매 금액 6%의 점유율을 보였다.

채널별 세부 내용 분석 결과 2024년 판매 부수는 총 107,939,222부 중에서 온라인서점 65%(69,662,888부), 대형서점 29%(31,684,829부), 지역서점 6%(6,591,505부)이다. 판매 종수는 총 1,200,851종 중에서 온라인서점 50%(602,080종), 대형서점 35%(418,189종), 지역서점 15%(180,582종)이다. 판매 금액은 총 1조 7,610억 원 중에서 온라인서점 65%(약 1조 1,447억 원), 대형서점 29%(5,172억 원), 지역서점은 6%(약 991억 원)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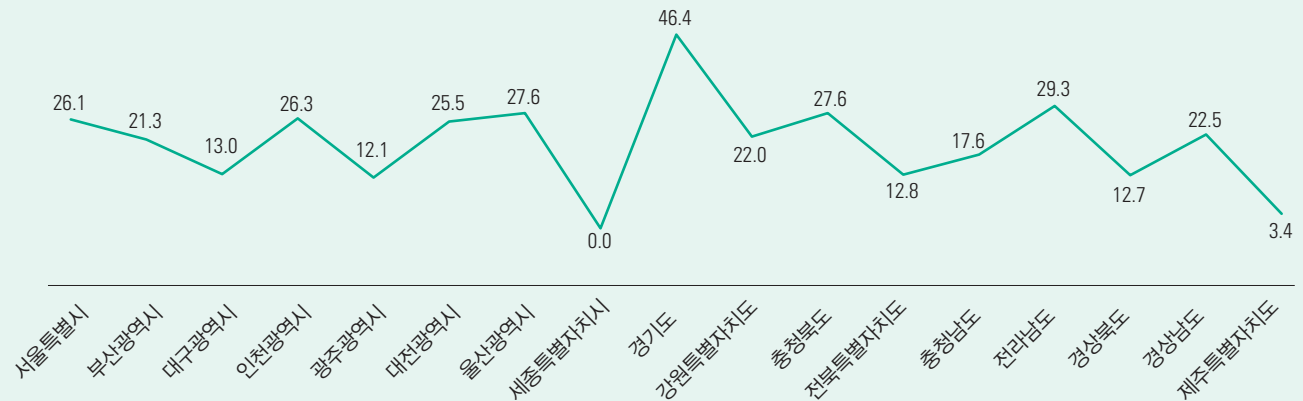
■ 출판전산망 2024년 채널별(온라인, 대형서점, 지역서점) 판매 현황(판매 부수, 종수, 금액)



2021년 9월 출판전산망 개통 당시, 출판전산망에 연결된 지역서점은 125곳이었다. 이후 2022년 코로나19 시기에는 179곳으로 54곳 증가했고, 2023년에는 241곳으로 62곳 더 늘어났다. 2024년에는 251곳으로 10곳 증가, 2025년에는 11월 기준 20곳 증가하여 271곳¹⁾이다. POS를 사용 중인 전국의 지역서점 1,054곳 중에서 출판전산망에 연계되어 판매 데이터 제공 실적이 있는 지역서점은 271곳으로 전체의 약 25.7%를 차지한다. 출판전산망과 POS 연계 비율은 경기도가 46.4%로 가장 높았고, 제주도가 3.4%로 가장 낮았다. 주요 광역시의 출판전산망과 POS 연계 비율은 서울 26.1%, 인천 26.3%, 대전 25.5%, 울산 27.6%, 부산 21.3% 수준이다.

1) 2025년 기준 출판전산망에 연계, 판매 데이터 제공 실적이 있는 지역서점

■ POS 사용 지역서점 수 대비 출판전산망 연계 서점 수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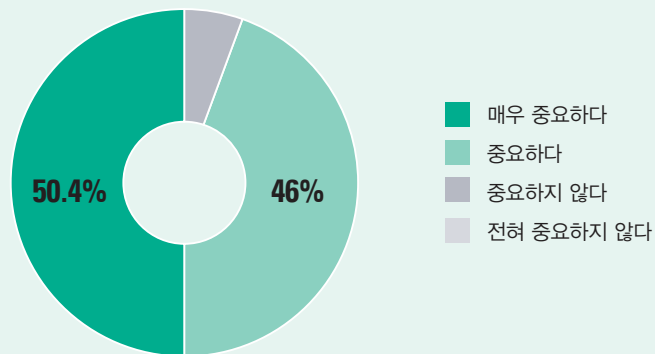


*출처: <2024 지역서점 실태조사> 자료와 출판전산망 연계 지역서점 자료 재구성.

IV. 출판전산망과 지역서점 POS 연계 확대 필요성

2025년 10월 출판전산망운영실이 출판전산망 가입 출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지역서점 POS 연계 출판사 인식 조사>에 따르면, 지역서점 POS와 출판전산망 연계의 중요도에 대해 응답자의 96.4%가 '중요하다'(50.4%) 또는 '매우 중요하다'(46%)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판사 대부분이 POS 연계의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출판전산망'과 지역서점 POS 연계에 대한 중요도 인식



지역서점의 위탁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우선 과제로는 ① 출판전산망과 지역서점 POS 연계 확대(75.4%) ② 출판사·도매·서점 간 위탁 관련 조항을 명확히 규정한 유통 표준계약서 마련(62.1%) ③ 출판·서점 단체 간 협의를 통한 개선책 마련(46.6%) ④ 위탁거래 축소 및 현매 방식을 확대를 위한 구조 개선(39.7%) ⑤ 각자의 거래 조건 안에서 자율적인 조정과 해결(15.1%)의 순으로 나타났다.

■ 지역서점 위탁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해야 할 조치



또한 출판사가 생각하는 출판전산망의 POS 연계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의 우선 순위로는 첫째, ‘POS 연계 서점에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지역서점의 POS 연계를 의무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출판단체와 서점단체 간 협약 체결 및 동의 절차를 통해 연계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지역서점 지원 사업에서 POS 연계 서점을 우대하는 정책적 장치가 요구된다’, 다섯째, ‘지역서점 단체를 중심으로 POS 연계를 요청하고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순으로 나타났다.

출판전산망은 국내 출판유통구조의 투명화와 선진화를 위해 구축된 출판유통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이다. 출판물의 생산·유통·판매 과정을 실시간으로 정보화함으로써 지금까지 분산되어 있던 출판유통정보를 통합관리한다. 특히 온라인서점, 대형서점 그리고 지역서점의 판매관리시스템을 연계하여 출판산업 판매 통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출판전산망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서 지역서점 POS를 연계하여 판매 및 재고 데이터를 출판사에 제공하고, 출판사는 도서정보를 지역서점에 제공하는 상호 연계 구조 마련이 필수적이다.

지난 9월 출판전산망 사용자 인터뷰에서 한국서점인협의회 이연호 회장은 데이터 활용과 전산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며 “출판유통 선진화를 위해서 <출판전산망>과 서점 POS를 이용한 데이터 통합과 연계는 매우 필요합니다. 서점 경영 효율화를 위해서 전산이 ‘핵심 열쇠’라고 봐요. 전산이 사람의 행위를 어떻게 도와줄 건가 고민해야 하고, 데이터와 통계 분석 도구들이 있는데 서점 경영에 활용 안 한다는 건 큰 문제입니다”라고 말했다.

지역서점 경영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데이터 활용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출판전산망과 지역서점 POS 연계가 확대될 때 출판·유통 생태계 전반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지역서점이 판매·재고 정보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기술 지원, 시스템 구축, 운영비 지원 등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지역서점은 투명한 판매 데이터 공유를 통해 지역서점이 출판 생태계의 중요한 축임을 공고히 해야

한다. 지역서점에 대한 정책 지원과 업계 혁신 노력을 위해 지역서점의 도서 유통 상황을 데이터로 증명할 수 있도록 이를 위한 다양한 움직임과 상호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시점이다.



김동혁 _ 서일대학교 미디어출판학과 조교수

데이터 기반의 정량적 분석을 바탕으로, 출판 생태계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 및 프로젝트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다. 주요 연구로는 『전자출판시장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2024), 『디지털 환경에서 도서관 서비스 품질 분석에 관한 연구』(2024), 『적소이론을 통해 본 도서 발견에 관한 연구』(2018) 등이 있으며, 변화하는 출판 환경에 대응한 대안 제시와 정책 제언에 힘쓰고 있다.